



連載 [3]

잃어버린 古代都市

Ⅲ. 都市에 의탁한 古代人의 想像力이란 무엇일까?

都市에는 다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본다면 質이 좋은 大量의 물자가 모여 들고 있다. 그리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며 즉 市場이 형성된다. 물자뿐만 아니라 情報나 知識이 모이게 된다. 그것은 바로 生産에 도움이 되거나 民族이나 국가를 조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政治의 權力이 도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權力자는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많은 도시를 정복했지만 도시는 만들지 않았다. 알렉산더大王은 북아프리카 제일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그의 이름을 붙였으나 그 자신은 당대에 도시를 구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바빌론의 도시나 이스탄불은 당대의 왕이나 權力자에 의해서 完成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시란 물론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의 중심으로서 작용하고 있긴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것이 도시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카나 중세 일본의 奈良와 같은 혹은 한국의 신라와 같은 종교적인 聖地로서 도시가 된 도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경제만이 아닐 경우 도시란 말하자면 인간집단의 생물적 존재 기능의 集積만도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도시란 인간의 집단이 다만 大量으로 모이는 곳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部分이나 기능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有機體로서의 生物과 같이 정돈되고 조화된 때에 비로소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部分의 모여짜기에서 통일체에의 질적인 전환을 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존재해 있는 도시의 부분을 아무리 모여짜기 해 보아도 통일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一

로 느끼는 것은 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想像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想像이라고 해도 空想만 아니며 인간의 집단이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혹은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意圖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文化와 文明을, 다만 생물적인 편리함만이 아닌 편리함이나 풍부함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과 같이 制限된 욕망으로부터 문화는 태어날 수가 없다.

만일 인간의 文化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충족이라면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단편적이 아닌 인간 전체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도시를 도시답게 꾸며 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文化的 想像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